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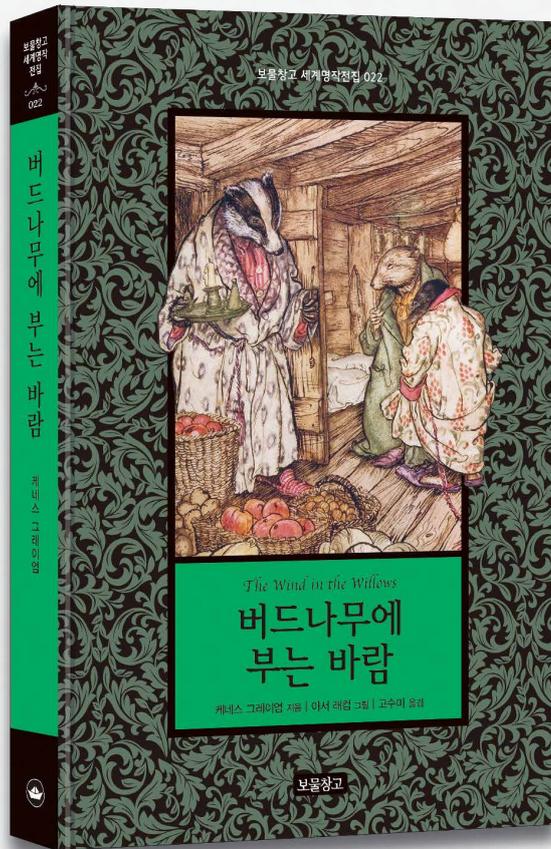
|어린이, 청소년|

보물창고 세계명작전집 22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케네스 그레이엄 지음 | 아서 래컴 그림 | 고수미 옮김

★ BBC 선정 최고의 동화책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케네스 그레이엄은 선천적으로 시력이 약해 앞을 잘 보지 못한 아들을 위해 잠자리에서 천연림에 사는 동물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호기심 많고 순수한 두더지가 영리하고 사교적인 시인 물쥐, 마음씨 따뜻하고 현명한 오소리 아저씨, 으리으리한 저택을 가진 명랑한 사고몽치 두꺼비 등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사귀면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한다.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에는 신나는 모험의 경험과 다채로운 자연의 풍경뿐만 아니라 치유의 기운을 선물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까지 녹아 있다.

작품 곳곳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과 풍자가 드러나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서정적인 언어가 인상적이다. 또한 세련되고 품격 높은 유머가 돋보이며 특히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에 대한 메시지가 독자들의 가슴에 커다란 울림을 선사한다.

읽기 전 활동

1. 버드나무를 보면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2. 책의 뒤표지를 읽고 두더지, 물쥐, 오소리 아저씨, 두꺼비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3. 이 이야기는 19세기 말의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가 지금의 우리와 다른 이야기를 읽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읽기 중 활동

1. 배, 마차, 자동차, 비행기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이동수단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동물들이 왜 “사람 사는 마을이나 특하면 나타나는 사람들의 도로”를 좋아하지 않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3. 오소리 아저씨와 두더지는 족제비들에게 점령당한 두꺼비의 집을 왜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지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케네스 그레이엄(Kenneth Grahame)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꼽는 『버드나무에 푸는 바깥』의 작가 케네스 그레이엄은 1859년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났다. 밭을 갈아 아버지를 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니다가 5세 때 거주 정착했는데, 얼마 후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 케네스 그레이엄은 형제들과 함께 아주 권위적이고 차가운 외할머니에게 말거렸으며, 9세 때 옥스퍼드의 기숙학교에 보내졌다.

그는 공부를 좋아하고 성격도 좋아 대박에 진박하고 싶었지만, 친척들이 학비를 대 주지 않아 취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레이엄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문학적 소질도 있어,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1890년경부터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지은 『황금사과』와 『잠속의 나날』은 기성 작가들이 격찬할 정도로 작품성이 뛰어나다.

1899년 그레이엄은 엘스미르 플른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그의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쇠약하고 시력이 나빠졌는데, 그레이엄은 그런 아들에게 갖게 되는 작은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 이야기들이 모여 1908년에 『버드나무에 푸는 바깥』으로 출간되었다.

숲속 친구들의 보금자리인 『버드나무』는 생명력을 상징하고, 『바깥』은 다른 세상의 황기를 실어 날라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삶이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해 준다. 제목에서부터 변화무쌍한 삶의 본질을 담고 있는 이 동화는 인생의 지혜와 의미를 배우게 준다. 풍경의 세부 묘사가 뛰어나고, 외설어와 외래어가 다양해 독자들에게 읽는 재미를 선사하는 『버드나무에 푸는 바깥』은 어린 자녀를 둔 영국 가정의 필수서로 꼽히며 동화

의 고전으로 자리매김되었다.

한편 이 동화가 탄생하게 된 계기였던 아들은 안타깝게도 20세 생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케네스 그레이엄은 1892년 73세가 되던 해에 급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케네스 그레이엄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모든 저작권료를 옥스퍼드 대학의 보들리언 도서관에 기부했다. 또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아내는 그레이엄이 아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를 기증했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독자와 대중이 책과 원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케네스 그레이엄 부부의 선행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 세계가 사랑한 고전

“케네스 그레이엄의 작품을 인격으로 만드는 것은 그에게 보기 좋은 작곡을 남기는 것일 수 있지만, 그의 작품을 넘장나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이 손대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곰들이 푸』를 쓴 작가였던 알렉산더 윌킨슨은 『버드나무에 푸는 바깥』 속 두꺼비의 모험 이야기를 자세히 연구해 만들어 이렇게 말했다.

한편, 역사상 생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세계적인 판타지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K. 롤링은 『버드나무에 푸는 바깥』을 “어린 적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으로 꼽았다. 케네스 그레이엄이 아들에게 그랬듯 조앤 K. 롤링 역시 아버지의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추억을 지금까지도 소중한 감정으로 간직하고 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도 『버드나무에 푸는 바깥』의 엄청난 팬이었다. 그는 케네스 그레이엄에게 편지를 보내 “읽고 또 읽었다. 동생 인물들을 오랜 친구로 받아들여기에 이르렀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렇듯 『버드나무에 푸는 바깥』은 작품 속 캐릭터들의 영롱한 매력과 흥미진진한 모험, 욕기적이며 환상적인 풍경 묘사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아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들의 추억 속에 자리하고 있다.

4. 내가 책 속 주인공들 중 하나라면 두꺼비가 빼앗긴 저택을 되찾도록 도울 것인지, 돕지 않을 것인지 그 이유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돕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울 것인지도 이야기해 봅시다.

읽은 후 활동

1. 케네스 그레이엄은 아들에게 왜 다양한 동물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2. 땅 속에 있는 두더지의 집과 물가에 있는 물쥐의 집처럼, 우리 집만의 개성 있는 부분을 소개하고 우리 집이 좋은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3. 어떤 동물들은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납니다. 사계절 중에서 어떤 계절이 가장 좋은지 그 이유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4.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 세상을 여행한다면 어떤 곳을 모험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시다.(반드시 어떤 나라나 지역이 아닌 장소여도 괜찮아요.)
5. 우정, 사랑, 돈, 명예 등 세상의 다양한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1908년에 출간된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은 '영국 문학사의 보물'이라고 평가 받는 작품으로, 세계적인 작가들 사이에서 손꼽히는 고전 동화이다. 출간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의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은 어린 자녀가 있는 영국 가정의 필독서이다. 새로운 것만 보면 비칠 듯이 달려드는 두꺼비, 영리하고 생각이 깊은 물쥐, 마음이 따뜻한 오소리 아저씨, 호기심 많은 두더지가 펼치는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은 우정, 도덕성, 모험심 등을 배우고, 어른들은 인생의 지혜와 의미를 깨우친다.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은 출간되자마자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러나 획일적인 교육을 주장하며 어린이들이 환상에 빠지는 것을 금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출간이 쉽지 않은 않았다. 하지만 그레이엄의 열렬한 팬이었던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 출판사에 이 책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지를 보내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이 비로소 독자들에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파괴되지 않은 자인과 주인공들의 아름다운 우정을 그린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은 영국 문학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으며, 후대의 동화 작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레이엄의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아 '맹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앓을 잘 보지 못하는 어린 아들을 위해 그레이엄은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땅속에 사는 두더지, 강가에 사는 물쥐, 깊은 숲속에 사는 오소리, 늘 절단 제하는 두꺼

비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였다. 아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편지에 이야기를 적어 보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이야기가 마침내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강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러 동물이 더불어 생활하면서 모험을 떠나고 결투하고 화해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장대한 물가에서 버드나무 가지 아래로 배를 타고 지나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물쥐와 두더지, 지동차를 보고 흠뻑 반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험을 떠나는 두꺼비, 얼하면서도 늘 지혜롭게 상황에 대처하는 오소리 아저씨, 날의 깃을 빼앗고 괴물 하기를 우습게 여기는 족제비와 뱀비들. 그레이엄은 이 동물들의 모습과 습성에 다양한 인간의 성격을 대입시켜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 주었다. 책상을 넘기다 보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양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이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윌헬름스가 선정한 문학의 도시, 예든버리

케네스 그레이엄의 고향 예든버리는 1437년 스코틀랜드의 수도로 선정된 뒤 문화, 정치, 교육,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예든버리는 문학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인들의 문학 활동이 두드러졌던 곳이며, 수많은 문인을 배출하기도 했다.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와 조앤 K. 롤링의 『해리 Potter』가 바



케네스 그레이엄의 고향 예든버리